

“언젠가 기회 온다고 믿었다” ‘서드 골키퍼’ 윤평국 선방쇼

성남전 무실점 3연승 견인
인내 끝 빛 본 백업 수문장
2015년 K리그 무대 데뷔
자신과 같은 동료들 응원

“저는 광주의 세 번째 골키퍼였습니다.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절실하게 임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입니다.”

광주FC 골키퍼 윤평국(29)이 하나원큐 K리그1 2021 27라운드 성남FC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윤평국은 이날 성남의 결정적인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내며 광주의 무실점 승리와 함께 팀의 3연승을 이끌었다.

윤평국은 2013년 K리그 신인드래프트에서 5순위로 인천에 입단했지만 두 시즌 동안 엔트리에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후 윤평국은 2015년 군 입대를 택했고, 그해 3월 21일 상주상무 소속으로 경기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에 출장하는 데까지는 또다시 213일이 더 걸렸고, 10월 20일 안양전

에서 마침내 K리그 무대에 데뷔했다.

윤평국은 전역 후 광주로 동지를 옮겼으나, 2017시즌에도 당시 광주의 주전 골키퍼였던 윤보상의 백업으로 세 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그러던 2018시즌 윤보상이 군에 입대하며 윤평국은 여섯 시즌 만에 주전 자리를 꿰찼고, 24경기에 나와 26실점을 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바탕으로 이듬해인 2019시즌에도 광주의 골문을 지켰고, 26경기 24실점으로 광주의 K리그2 우승에 이바지했다. 하지만 2020시즌 K리그1에 복귀한 광주는 윤평국과 이진형이 각각 14경기, 13경기에 출장하며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올 시즌에는 친정팀 광주로 돌아온 윤보상이 주전 골키퍼로 낙점됐고, 윤평국은 다시 벤치를 지켜야만 했다.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한 윤평국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윤평국은 지난 25라운드 인천전부터 선발로 출장했고, 이후 세 경기에서 단 한 골만 허용하며 광주의 3연승을 이끄는 등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골키퍼는 팀에서 유일한 포지션으로, 어렵게 프로팀에 입단하더라도 주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비늘구멍과 같은 경쟁을 거쳐야 한다.

2013시즌부터 2021시즌 28라운드 종료 현재까지 K리그 공식경기의 출전선수명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선수의 수는 총 1,380명이다. 포지션별로는 FW가 135명, DF가 448명, MF가 402명, GK가 135명이었다.

이 1,380명의 선수들 중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은 있지만 실제 경기에는 한 번도 나서지 못한 선수는 포지션별로 GK가 49명(약 36%)으로 가장 많았고, DF는 43명(10%), MF는 28명(7%), FW는 17명(4%) 순이었다. GK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인 약 3분의 1이 넘는 선수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출장 기회를 잡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3시즌부터 2021시즌 28라운드까지 K리그1에서 경기 중 교체 투입은 총 1만1,738번 있었다. 그런데 이 중 GK 교체는 46번에 불과했고, 특히 27라운드만 치러진 지난 2020시즌에는 GK 교체 투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골키퍼에게 돌아오는 출장 기회 자체가 적고, 그 적은 기회마저도 소수의 주전급 선수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다.

인내와 도전 끝에 기회를 잡은 백업 골키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 널리 알려진 사례는 울산의 2020 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이끈 골키퍼 조수혁이다. 조수혁은 주전 조현우가 ACL에 불참하며 기회를 잡았고, 조별리그 다섯 경기 5실점, 토너먼트 네 경기 2실점을 기록하며 무패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조수혁은 최근 울산과 3년 재계약에 성공했다.

수원FC ‘원클럽맨’ 박배중은 지난 2020시즌 K리그2에서 부상을 당한 유현을 대신해 하반기 11경기에 선발로 출장했고, 11실점, 클린시트 6회 등을 기록하며 승격에 일조했다. 현재 강원 FC의 주전 골키퍼인 이범수는 2010년 전북에서 프로 데뷔 후 여러 팀을 오가며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2017년 경남으로 이적해 21경

기 18실점으로 경남의 승격을 이끌었다.

포항의 수문장 강현무도 최초 명단 등록 후 476일 만에 데뷔했고, 지난해 국가대표로 뽑힌 이창근(제주) 역시 첫 경기를 뛰는 데 328일이 걸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전산상 검색 가능 범위 내에서 데뷔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골키퍼는 1999년 제주(당시 부천SK)에 입단한 김지운이다. 김지운은 1999년 4월 24일 엔트리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무려 2,528일 뒤인 2006년 3월 26일 그라운드를 밟았다.

자신과 같은 상황의 동료들을 응원한 윤평국의 한마디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을 많은 K리그거들께 희망이 됐을 것이다. 그들의 절실함과 그들이 흘리는 땀을 응원하는 팬들의 모습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또 하나의 감동 포인트다.

/최진화 기자



내 서브를 받아라 그리스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가 지난달 31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센터에서 열린 US오픈 남자단식 1회전에서 서브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조선대 추계대학테니스연맹 남자 단체전 우승

팀 재창단 후 1년만

조선대학교가 제75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33회 회장배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조선대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계명대를 3-2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조선대는 준결승에서 호서대를 3-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조선대는 지난해 팀을 재창단한 후 1년 만에 남자 단체전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재환, 최현수, 최호성, 우성현이 나선 조선대는 계명대와 4개 단식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마지막 복식 매치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열전 끝에 종합전적 3-2의 신승을 거뒀다.



조선대학교가 지난달 30일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75회 전국추계대학테니스연맹전 겸 제33회 회장배대회 남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자부에서는 인천대가 결승에서 원광대를 3-0으로 꺾고 3연패를 달성했다.

인천대는 박영경과 김은아, 노하림이 차례로 승리를 따내 왕좌를 지켰다. /최진화 기자

이강인 스페인 마요르카와 4년 계약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와 10년 동행에 마침표를 찍은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20)의 새로운 동지가 RCD 마요르카(스페인)로 결정됐다.

마요르카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렌시아와 계약을 끝낸 이강인과 4년 계약을 했다”라며 “자유계약(FA)으로 2025년까지 계약한 이강인을 즐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강인은 10살 때 발렌시아에 합류해서 성장했고, 17살 때 1군에 데뷔해 62경기를 뛰면서 3골을 넣었다. 구단 모든 구성원을 대신해 이강인이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마요르카에 새 동지를 틀은 이강인은 이번

시즌 임대로 팀에 합류한 일본 축구의 기대주 구보 다케후사(20)와 한술밥을 먹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동갑내기 우정’을 펼치게 됐다.

공격형 미드필더가 주요 보직인 이강인은 측면 날개로 주로 뛰는 구보와 공격라인에서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이강인의 마요르카 이적은 이미 확정적이었다. 발렌시아가 지난 25일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르쿠스 안드레(25)를 영입하면서 3명의 비유럽 선수 쿼터 때문에 이강인의 이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앞서 스페인 언론에서도 마요르카가 이강인의 영입을 원한다는 내용이 흘러나왔고, 이강인은 29일 발렌시아에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예정대로 이날 마요르카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광주FC U18 금호고 챔피언십 준우승

대구에 승부차기 7-8 석패
정운태 우수선수상 영예

광주FC U18 금호고가 K리그 산하 고등부 클럽이 총출동한 하계 토너먼트 대회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U18은 지난달 30일 창녕스포츠파크5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대구 U18(현풍고)과 연장전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 7-8로 아쉽게 패했다.

연장전까지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광주는 승부차기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 U18이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3위는 전남 U18(광양제철고)과 전북 U18(영성고)이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대구U18의 공격



광주FC U18 금호고가 지난 달 30일 창녕스포츠파크5구장에서 막을 내린 2021 K리그 U18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과 수비를 동시에 이끈 윙백 박용찬이 받았고 광주U18 정운태는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K리그 U18 챔피언십은 지난 2015년 창설된 이후 K리그 유소년 육성 환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왔다. 이번 대회는 총 2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됐다.

기존의 EPTS 활용 피지컬 데이터 제공과 병행, 올해 대회에서는 GPS 없이 피지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윌티컬 트레이닝 데이터’가 16강부터 지원됐다. 결승에 진출한 두 팀에게는 실시간 영상 및 분석 서비스가 제공됐다. /최진화 기자

KIA 확대 엔트리 윤곽…한승혁·장지수·나지완

KIA 타이거즈의 확대 엔트리 명단이 나왔다.

맷 윌리엄스 KIA 감독은 지난달 3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방문 경기가 우천 취소되기 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승혁, 장지수, 나지완을 확대 엔트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KBO리그는 9월 1일부터 확대 엔트리를 시행한다. 각 팀은 기존 1군 엔트리(28명)에 추가로 5명을 등록할 수 있다.

각 구단은 투타에 걸쳐 5명씩 보강해 순위 경쟁에서 요긴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KIA는 사정이 다르다.

KIA는 지난달 22일 퓨처스리그(2군) 선수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와 선수단 전체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단계별로 격리 해제되지만 그동안의 훈련 공백으로 인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행히 한승혁과 장지수, 나지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확대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었다.

5명을 모두 채우지 못했지만, KIA에는 귀중한 전력이다. 세 선수는 이미 팀에 합류해 1군 등록만을 앞두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내일부터 격리 해제된 인원들에 대해 누구를 추가로 등록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